

한국 홈네트워크산업협회 출범 ... 초대회장 이용경 KT 사장



홈네트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구심체 역할을 할 한국 홈네트워크산업협회(HNA ; Home Network industry Association)가 지난달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 홈네트워크산업협회는 지난 8월 임의단체로 발족한 '디지털홈 포럼'을 민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통신·가전·건설업체, 방송사 등과 140여개 민간 업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초대 회장에는 이용경 KT 사장이 선임됐다. 협회는 통신 가전 건축 방송부문 관계사들로 구성된 부회장단과 산하에 홈네트워크 포럼, 광대역통합망(BcN)포럼 등을 두어 광대역 통합망과 홈네트워크를 연결,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앞으로 홈 네트워크 관련 ▲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정부 건의 ▲ 수요를 촉발할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방안 마련 ▲ BCN 등 유관 프로젝트 연계 발전방안 수립 등을 집중 추진한다.

티맥스소프트, 신임 사장에 김병국 전 LG CNS 부사장



미들웨어 전문기업인 티맥스소프트는 지난달 23일 김병국 전 LG CNS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병국 신임 사장은 LG정유에서 13년간 재직하며 재무와 회계를 담당했으며, 지난 87년부터 LG CNS에서 CFO와 공공사업본부 부사장을 거치며 재무와 영업 방면을 두루 경험한 전문 경영인이다.

김병국 신임사장은 "티맥스소프트는 이미 기술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업 및 마케팅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LG CNS 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티맥스의 글로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임 이재웅 사장은 올해 말까지 회사에 남아 김병국 신임사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마칠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경쟁력있는 우수한 콘텐츠 개발 및 저자 육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메트릭스, 새 대표이사에 조일상씨 선임

인터넷 측정조사업체인 메트릭스는 지난달 17일자로 신임 대표이사에 조일상 이사를 선임했다. 조일상 대표는 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 정보통신사업부에서 인터넷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 99년부터 메트릭스의 경영관리총괄이사로 재직해 왔다.



한국MS, 초대 NTO에 김명호 전 모하비소프트 사장 영입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외 IT 환경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 비전 제시를 위해 NTO(National Technology Officer)직을 신설, 초대 담당 임원(이사)으로 김명호 전 모하비소프트 사장을 선임했다. 'CTO를 위한 CTO'에 비유되는 NTO는 고객들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방향, 첨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신임 김명호 NTO는 지난 1989년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시작, 모바일 솔루션 개발사인 비트웹 기술이사를 거쳐 지난 2002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기업인 모하비소프트 대표로 근무해 왔다.

## 텔레매틱스산업협회 설립 ... 초대회장에 박상근 삼성전자 전무



IT 신성장동력 산업인 텔레매틱스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표준화와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텔레매틱스산업협회'가 설립됐다. 지난달 1일 열린 창립 총회에서 텔레매틱스 산업협회는 협회 정관을 승인하고, 박상근 텔레매틱스 포럼 회장(삼성전자 전무)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텔레매틱스산업협회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텔레매틱스 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텔레매틱스 서비스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통부와 텔레매틱스 관련 통신·자동차·전자제조·솔루션·콘텐츠 분야와 보험·정유·중고차 등 50여 개 업체가 발기인이 돼 설립됐다.

협회는 앞으로 ▲ 이동통신·자동차·보험 등 다른 업종간 전략적 제휴와 협업 모델 발굴 ▲ 공공부문 교통정보를 종합 처리하는 교통정보센터 수립 방안 마련 ▲ 텔레매틱스 서비스 홍보, 장비·솔루션·콘텐츠를 검증하는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검토 ▲ 국제 텔레매틱스 공동연구센터 설립 방안 검토 ▲ 중국·일본과 협력을 통한 텔레매틱스 동북아 시범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2007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한 2,200여억원을 투입해 텔레매틱스 원천기술 개발과 표준화, 교통정보 센터 설립,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사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 씨오텍, 영업·마케팅 임원 영입

e비즈니스 통합솔루션 전문업체인 씨오텍은 지난달 8일 신대현 전 웹메소드코리아 영업이사과 최원재 전 SAS 코리아 채널영업팀장을 각각 영업총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영입,



신대현 이사



최원재 이사

EAI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이사는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지난 91년부터 한국HP·웹메소드코리아 등에서 재무·컨설팅·마케팅·영업 업무를 두루 거쳤다. 특히 채널영업과 재무기획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해 전략적인 영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최원재 이사는 SK건설에서 기술 부문 엔지니어로 활동했으며, 삼성SDS, SAS코리아 등에서 연구개발 기획부터 제품생산·유통·마케팅 직을 두루 경험한 마케팅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 한국 로봇공학회 창립 ... 학회장에 KAIST 변증남 교수

IT 분야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인 지능형 서비스로봇의 기초·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로봇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모임인 한국 로봇공학회가 지난달 5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로봇공학회에는 서울대·KAIST·포항공대 등 11개 대학 로봇 관련 분야 27명의 학자들이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초대 학회장으로 변증남 KAIST 교수를 선임했다.



학회는 앞으로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원천·기초기술 연구의 구심점으로 각종 학술행사, 학회지 발간 등 학술 연구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2,600억원을 투자, 한국형 로봇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으로 조기에 시장 진출을 확대해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세계 3대 지능형 로봇 생산국가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무선인터넷솔루션협회 출범 ... 회장에 김주혁 XCE 대표



한국무선인터넷솔루션협회(KWISA : Korea Wireless Internet Solution Association)가 지난달 3일 출범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김주혁 XCE 대표가 선임됐으며, 부회장에 한용규 지어소프트 대표, 이사에 이종민 지오텔 대표, 이인홍 이노에이스 이사를, 감사에 임성순 아로마소프트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협회는 무선인터넷 솔루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점 사업으로 국산 무선인터넷플랫폼인 위피(WIFI)의 활성화를 선정하고 ▲ 표준제안 ▲ 국제 표준단체 공조 ▲ 온라인 WIFI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 기술교육 ▲ 콘텐츠 공모전 개최 ▲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 해외 전시회 공동관 참가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김주혁 신임 회장은 "국내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위피의 국내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비롯, 멀티메시지서비스(MMS), 위치기반서비스(LBS), 주문형비디오(VOD) 등 각 분야 대표적인 솔루션 기업 33개사가 1차로 참여해 정통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케이디씨정보통신, 신임 대표이사에 김석현 사장 선임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기업인 케이디씨정보통신은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갖고 대주주 변경을 통해 신임 대표이사에 김태섭 회장과 온세통신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김석현 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마케팅 총괄 부사장에는 컴팩코리아 사업부장을 거친 문창범(文彰範) 부사장이 선임됐다. 케이디씨는 이번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대내외적인 경영개선 작업 및 사업 목표 수립에 나설 예정이며, 신임경영진은 케이디씨의 인수사인 코스모휴먼닷컴의 풍부한 해외진출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화, 유망한 사업분야 발굴과 육성을 통한 전문화, 고객밀착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 5년내 유수의 성장기업 기반 구축 등 4가지의 기본경영 목표를 설정했다.

인사

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 조동원  
연구개발기획과장 김이환

맥스텔레콤

마케팅 · 제조생산 · 연구개발 총괄 부사장 홍성필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홈기술개발지원센터장 김은동  
신재생에너지 전원연구센터장 임근희

산업자원부

정책평가담당관 김영민  
지역산업진흥담당관 강남훈  
미주협력과장 심동섭  
산업혁신과장 변종립  
전자상거래지원과장 김창룡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총괄과장 김태수  
신성장산업연구팀장 최갑홍  
전자무역팀장 이재걸  
자본재통상팀장 성윤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부품연구단장 최연수

어필텔레콤

부사장 이영섭

마이비

대표이사 송봉원

에릭슨코리아

영업담당 상무 강진원  
서비스담당 이사 윤재익

벤처기업협회

기획조정본부 부장 박준모  
사업본부 사업2팀 팀장 이정민